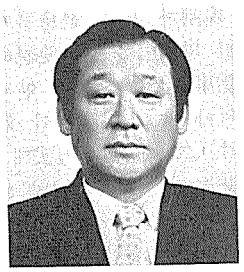


國際化 및 輸出力 強化의 해

具 滋 斗 / 金星半導体(株) 社長

1. GSS, '85년의 성취

半導体·컴퓨터·通信(電子交換機)등 3개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회사는 지난 한해 刮目할만한 成果를 올렸다.

우선 半導体分野에서는 지난해 6월 64K SRAM을 開発, 国内半導体産業을 高附加価値追求 産業으로 変貌시켰다. 5개월뒤인 11월에는 또 美国, 日本에 이어 世界 3번째로 1메거롬의 自体 開発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半導体産業에 메거時代를 여는 획기적인 개가를 기록했다.

컴퓨터分野에선 生産工場 竣工으로 量産 体制를 갖춤은 물론 GSS PC24 상당량을 處女輸出하기도 했다. '85年初에는 金星소프트웨어株式会社의 設立으로 専門的인 소프트웨어 開発·供給能力을 확보하였다. 또 歷史的인 '86·'88양대회의 종합정보망을 위한 전산장비의 공식후원업체로 우리회사가 지정됨으로써 컴퓨터事業의 未來基盤을 확고히 構築하였다.

通信部門에선 賣出目標를 超過 達成하였고, 新規事業으로 傳送 및 유지 보수 시스템 分野의 기초를 다진 해였다.

2. 不透明한 內外 環境

'85년 우리 会社의 成就와 努力이 위와 같았으나 '86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회사는 잠시도 安住할 수 없다는 強迫 觀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안팎의 환경이 不安定할뿐 아니라 우리앞에 가로놓인 諸般與件과 狀況이 짙은 안개 이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內需景気는 아직도 沈滯돼 있고, 国内市場에서의 製品 및 技術競爭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기에 輸入自由化 措置로 이제는 国内市場에서 조차 国内業体끼리의 競爭을 넘어서 外国業体와도 熾烈한 価格·品質競爭을 벌이게끔 됐다.

景気의 沈滯 및 不況局面은 美国을 비롯한 餘他諸国에도 마찬가지로 長期化되면서 쉽게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因해 先進 여러나라에선 自国産業保護라는 名分아래 保護貿易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先進国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後発開途国에 対해 무리한 市場開放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經濟事情은 이제 70年代와 같은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기대키 어렵게 됐다. 불투명한 內外環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냉엄한 現実인 것이다.

3. 体質改革으로 対處

우리에게 直面한 現実이 어렵고 냉엄할수록 우리는 이에 「正面으로 맞서」 슬기롭게 対處해야 한다. 回避는 敗北로 通하는 길목이며 躊躇는 救濟가 어려운 弱者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難関克服을 위해선 体質 改革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여겨, 그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先進必勝意識」의 体質化이다.

앞서 가지 못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精神이 없다면 企業이든 個人이든 存在価値의 喪失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国際化 및 輸出力 強化」를 体質化해야겠다.

世界는 「地球村」으로 불릴 정도로 좁아졌다. 国内固着的인 편협한 視野나 觀念으론 応戰(Response)의 姿勢를 가다듬기 어렵게 됐다. 事業의 国際分業的 比較優位를 확보함과 아울러 世界市場에의 과감한 進出을 図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改革과 創造」의 体質化이다. 묵고 낡은 것의 껍질은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하고 새로운 것에의 挑戰(Challenge)은 間断없어야 한다. 이

를 外面할 때 우리는 生存目標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3개항의 体質改革운동을 우리 회사는 Initiative (先進必勝) Internationalization (国際化 및 輸出) Innovation (改革 創造) 등의 英字로 代位시켜 그 머리글자를 따서 「쓰리 아이」 (Three "I") 운동이라 이름지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이 「쓰리 아이」운동을 全社的으로 展開·推進해 나가고자 한다.

4. 尖端技術 自立의 召命

우리 会社가 올해 主力해야 할 또 하나의 課題는 「尖端技術의 自立」이다. 産業社会의 成敗와 国際競爭에서의 優劣의 要諦는 技術自立이기 때문이다.

尖端技術의 自立을 위해 올해 우리会社는 첫째, 生産技術力을 최대한 強化할 것이다. 生産技術이란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技術」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研究開発과 生産의 有機的 連繫가 強化돼야 할 것이다.

둘째, 製品과 技術의 創造的 開発을 위한 労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고 남의 것을 模倣하거나 Copy만 하는 것으로 버틸 수가 없다. 우리도 무언가를 世界 첫번째로 開発하여 앞서가는 技術力을 誇示해야 한다. 또 그럴 때도 됐다고 본다. 技術의 創意的 開発이야말로 情報社会 구현의 무거운 責任을 지고 있는 우리 会社의 召命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生産製品의 国産化率을 크게 提高해 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 半導体事業의 成長과도 깊은 聯関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政府가 強力하게 추진하고 있는 外債節減運動의 根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86年의 意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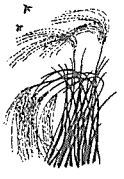
올해 우리가 挑戰해서 풀어야 할 Project 들은 山積해 있고, 狀況은 이미 展開되고 있다. 우리는 意志로 맞설 것이다.

半導体部門에선 尖端新製品 開発力을 대폭 強化할 것이다.

우리 회사가 그 동안 이룩한 CMOS Gate Array 64K SRAM 및 메거비트 ROM 開発成果만으론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技術力과 創意力을 總動員, 조속히 先進国과 対等한 技術競爭이 可能한 水準까지 우리의 尖端新製品 開発力을 끌어올려야 하겠다. 아울러 賣出伸張을 通한 投資回転率의 提高도 병행시켜 나갈 것이다.

컴퓨터部門에서는 무엇보다 販賣活動을 強化, 市場占有率을 提高함과 동시에 컴퓨터 販賣에 필수적으로 隨伴되는 소프트웨어의 開発支援体制를 착실히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엔 특히 지난해부터 輸出이 개시된, 16비트 사무용 컴퓨터인 GSS PC24는 물론 多様한 品目으로 海外市場에 적극 進出할 것이다.

通信部門은 지속 成長이 확보될 수 있도록 新規事業의 早期 定着과 発掘에 焦点을 둘 것이다. 더우기 政府의 通信製品 品質保證制度 導入에 발맞춰 우리의 内部体制도 빈틈없이 整備 強化, 事業推進에 萬全을 期하도록 채비를 끝냈다.

우리 会社는 지난 6年間 꾸준한 成長을 이룩해 왔다. 지금 우리는 「過去」와 「未來」의 交叉点에서 새로운 跳躍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重要한 時点에 섰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対応할 우리의 姿勢는 自信感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任職員의 成就 意慾은 活火山처럼 달아오르고 있다.